



4면
방위산업 미래와 지역의 역할

전주매일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음 4월 28일) 제32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차전지소재 리튬염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전해액 제조기업 엔캠·중앙디앤엠 공동 설립 이디엘, 전북도·새만금청·군산시 등과 협약 새만금 국가산단에 6005억 투자 하반기 중 착공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주)엔캠과 (주)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주)이디엘사와 새만금 리튬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의 하나인 전해액의 주 생산원료로서 배터리 수명, 충전전 효율, 안정성 등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임관록 (주)엔캠 부사장,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 5만 톤급 리튬염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여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리튬염은 (주)엔캠의 미국 및 유럽 내 공급망을 통해

북미와 유럽 소재 기업들에 판매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급변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미국 아이알에이(IRA), 유럽 시알엠에이(CRMA) 등을 기회로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생산경제를 통한 세계적 도약을 목표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특히, 6월 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앞둔 상황에서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신속한 행정처리, 여기에 철도·공항·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에 필요한 원소재로서, 2022년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전체 수입량의 97%(약 11억6,540만달러)가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리튬염 생산공장 유치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리튬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과 국산화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가 예상된다.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은 이번 투자가 이차전지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상생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도사는 "(주)이디엘의 전북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투자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들이 여러 건 있다.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소통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이디엘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도약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따른 이차전지 소재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국가산단에는 총 15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해 사실상 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더욱더 절실해지게 되었다. /군산=김관공 기자



15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주)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양산공장 투자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과 김상문 (주)이디엘 이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도지사, 김상문 (주)이디엘 이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첨단 메디바이오 소재 지원 '활시위'

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선정... 159억원 투입 전북-경기-대구 3개 지자체 초광역 컨소시엄 구성 전북바이오진흥원, 건강기능식품 시제품 생산 등 담당 "도내 기업에 실질적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경기-대구 3개 지자체와 초광역 컨소시엄을 구성·추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가 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연구개발 기반을 대학,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핵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18개 과제를 지정 공모했는데 전북도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타겟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7대 세포소기관에 대한 자가포식 제어 기술 기반의 세포·동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내 신약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자가포식 제어 기술은 여러 병리 조건에서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세포소기관을 선택적으로 분해·제거해 세포소기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필수 기전이다. 2016년 자가포식 조절 기전 연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래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표적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 분야다. 진흥원은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건

강기능식품 생산장비와 품질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이용해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시제품 생산 및 제품개발을 담당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을 담당한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주관기관)의 세포소기관 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센터는 발굴한 소재를 이용한 세포소기관 자가포식 가능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을 수행한다. 참여기관의 특장점을 강화해 각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초광역권 연계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육산식품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첨단 바이오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대구경북첨단단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의 초광역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잼버리 협력병원 추가 지정

예수병원, 의사 등 파견 허브클리닉 1곳 전담 운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으로 예수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잼버리 협력병원은 이미 지정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전주병원을 포함하여

총 5곳으로 든든한 배후진료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예수병원은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의사 2명, 간호사 8명을 파견해 허브클리닉 개소를 전담 운영한다. 또한 후송 환자에 대한 우선 진료

체계 및 응급환자 진료 및 처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일부 감면, 통역서비스 제공, 진료 전·후 일반환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대기공간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윤덕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전북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토·일요일신문 쉽니다.



초록단풍명소
내장산
쏟아지는 햇살
깊은 골짜구니에서 불어오는
초록빛 바람
좋은 이들과 즐기는
여름날의 내장산...

